

충남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및 핵심프로젝트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 농산물 시장 개방,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더불어 내포 신도시 조성, 도청 이전 등이 완료되면 충청남도 내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됨.
- 이러한 변화는 충청남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 불균형 심화, 농어촌 인구 감소 등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음.
-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부정적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농어촌이 나아갈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개발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및 여건 변화

1) 시대적 전망과 여건변화

- DDA,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
 -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5대경제권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EU 등임. 이들 국가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 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농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인식 변화

-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저질의 농산물들이 수입된다면 이러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국민 의식조사 결과¹⁾에서도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뽑음
- 농어촌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음. 농어촌·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류 인구의 증가는 물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집계한 2011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10,503호로서 전년(4,067호) 대비 158% 증가.

표 5.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단위: 명

구분	도시→농어촌 (A)	농어촌→도시 (B)	A/B
2001년	717,208 (7.7%)	735,063 (7.9%)	0.98
2005년	685,031 (5.7%)	700,750 (5.9%)	0.98
2009년	634,807 (5.5%)	603,715 (5.2%)	1.0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주1: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 다원적 기능, 어메니티, 경관 등 농업·농촌에 대한 재조명 확산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 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됨.
-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음식 등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농어촌 경관이

1)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평가됨.

2)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될 전망

- 농어업과 2·3차 산업과의 연계, 친환경 농업 확대, 농어업 수출 산업화, 생산·유통 조직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농어촌 영향 평가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장소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이자 주거 공간으로서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이에 따라 농어촌 정주 공간 재편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

3) 충남의 여건변화

○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필요성 증대

- 내포신도시와 각 시·군간 교통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임.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이 완료되면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 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내포신도시는 주변의 도시 및 주요 집적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자원투입으로 전략적 도정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향토산업의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 취약

- 충남지역의 대표적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충남에서는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취약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2008년 기준)은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9%, 읍부 86.5%인데 반해 면부는 54.9%에 그치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7%, 읍부 82.8%인데 반해 면부는 36.0%로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함.
- 2008년 기준 충남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에서 가장 낮으며, 시 지역 69.4%에 비해 군 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은 더욱 열악함.
- 충남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16개 시·군 23개 업체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 충남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여건이 열악하며 지역 간 불균형 정도도 높은 편임.

○ 농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마을 과소화·공동화의 심화

- 충남지역의 농가수 및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충청남도의 4,517개 농어촌 마을 중 3.5%인 158개 마을이 가구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임. 특히 부여군, 연기군, 서천군 등의 과소화 마을 비중이 높은 편임. 새로운 인구 유입, 인구 과소화·공동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성격도 변화할 전망.

표 6. 농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업가구	농가인구	농업가구(전국대비 비중 : %)	농가인구(전국대비 비중 : %)
2005	1,272,908	3,433,573	163,197(12.82)	446,022(12.99)
2006	1,245,083	3,304,173	161,986(13.01)	437,295(13.23)
2007	1,231,009	3,274,091	161,025(13.08)	433,585(13.24)
2008	1,212,050	3,186,753	160,734(13.26)	428,273(13.44)
2009	1,194,715	3,117,322	158,528(13.27)	417,312(13.39)

자료 :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표 7. 충청남도 과소화 마을 현황

시군	과소화 마을	총 마을 수	과소화 마을 비중
계룡시	3	63	4.76%
공주시	2	275	0.73%
금산군	12	249	4.82%
논산시	9	420	2.14%
당진군	1	260	0.38%
보령시	4	235	1.70%
부여군	36	434	8.29%
서산시	4	261	1.53%
서천군	21	315	6.67%
아산시	12	372	3.23%
연기군	15	203	7.39%
예산군	9	304	2.96%
천안시	18	426	4.23%
청양군	2	183	1.09%
태안군	0	185	0.00%
홍성군	10	332	3.01%
합계	158	4,517	3.50%

주: 과소화 마을은 가구수 20호 미만의 마을을 의미함

3. 충남의 정책방향

1) 기본 방향

-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촌 지역 사회 조성
 -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
 - 도시민과 소통하는 자주적 농어촌 지역 사회 조성

2) 주요 전략

- 친환경·지역 순환 식품 체계 정립
 - 지역의 친환경적 농업 생산 시스템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통 체계 간의 조화 추진
 - 지역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체계 확립
- 민관협력의 사업 추진 체계 구축
 -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 참여 보장 시스템 확립
 - 행정 주도의 일방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주민 참여와 협의를 통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체제 확립
-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 기반 확립
 -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리더육성
 -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 확대
 - 농어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지원 시스템 개편

- 기반정비,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시스템 지양
- 지역 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시스템 확립

4. 핵심프로젝트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FTA 등 수입개방,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대 등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충남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어촌 활성화의 계기 마련

(2) 주요내용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조직 및 리더 육성,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 등
 - 친환경 농업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
 - 도시 학교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과 연결함.
- 고품질, 안전성, 친환경 축산 생산 시스템 확보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축사시설 현대화
 -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분뇨자원화
 - 유통판매시스템 선진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상생기반 구축
- 가치있는 친환경 임산업 육성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산채재배농가 선정 및 지원, 산채재배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유통 지원 등
 - 가치있는 산림 자원 육성: 산림유역 관리, 친환경 벌채, 목재바이

오매스 공급 등

- 갯벌 친환경 생산인프라 구축, 지역 대표 유망품종 집중육성
- 바지락 명품 단지, 갯벌 참굴 양식, 김 클러스터 구축, 해삼 특화단지 등

(3) 기대효과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
- 명품브랜드 육성 및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충남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축산업, 수산업의 체계적인 개발로 충남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으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

2) 충남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 공급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충족
- 친환경고품질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생산·유통 정책의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2) 주요내용

- 지역순환 식품체계 기본 계획 수립
- 지역식품 체계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 식품체계 구축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 심포지엄, 농민장터,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학교에 공급
-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등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광역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기대효과

- 친환경고품질정책과 로컬푸드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및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체계 마련

3) 충남 희망기업 육성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농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및 판매 조직 필요
- 지역의 우수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레스토랑, 휴양, 교육이 연계된 마을 자립형 모델 구축
- 농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 유통하는 마을을 영리법인(마을기업)으로 전환 유도
- 특성화된 농식품 가공 중심의 마을 기업 창업 지원
- 컨설팅,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 제조·가공 시설 신축 혹은 개보수
- 공동작업장, 판매장, 식당 등

(3)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 자원과 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해 마을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
-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의 융합을 통한 마을의 소득 창출

4)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민 유치를 통해 마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마을 조성이 필요

(2) 주요내용

- 도내 역량수준 유형별 전략적 마을 만들기
 - 농어촌마을 자원 조사, 역량 수준별 진단 분류
 - 마을 만들기 조직 및 리더 육성
 - 유형별 발전 사업의 계획과 실행
 -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마을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업 추진
- 소득창출형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 보조금 지원 의존에서 탈피하여 최소한의 행·재정 지원만 하는

자립 마을 조성

- 기존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대효과

-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농촌 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
- 농촌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으로 생활 만족도 증대

5) 혁신 리더 육성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리더는 지역 역량 강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지역 리더 양성
 - 지역리더프로그램 개발
 - 지역리더 양성 교육
 - 교육이수자 인력 Pool 구축
- 지역 리더 교육 기관 운영
 - 사업 담당자, 관련자 중심 교육

- 사업별 팀 구성과 팀별 토론 활성화
- 참여식 실천학습 모델(participatory learning & action: PLA)을 활용한 효과적 학습 체계 구축

(3) 기대효과

- 리더들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
-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 양성

6) 충남 도농상생 프로젝트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민들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에 체험·휴양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상생 발전의 기반 마련
-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

(2) 주요내용

-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
 -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 체험프로그램 상품 개발
 - 여행상품화 시범운영
- 귀농·귀촌 유치 정착
 - 귀농·귀촌 수요 통계 정비
 - 귀농귀촌인 모집 및 투어
 - 귀농귀촌 애로 지원단 운영

- 농어촌 응원 운동 전개
 - 농어촌응원운동본부 발족
 - 도농교류 및 소비 캠페인
 - 1사1촌 운동 전개

(3) 기대효과

-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귀농·귀촌인 증대로 인구 감소 완화 및 마을 활력 증진
-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도농상생운동으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